

사회

도박의 수렁에 빠진 코리안 드림

베트남 근로자 2명 단속 피하려다 추락사... 불법체류자 상당수

강제출국 두려워 창문밖 숨었다 참변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며 '코리안 드림'을 꿈꿔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박의 수렁에 빠졌다.

공단에서 알게 된 같은 나라 노동자와 이주 여성 등 약 30명이 혼성도박을 벌이던 중,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박행태나 혼성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은 나쁘지만, 고국에 대한 향수와 외국 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도박에 대한 탐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중이던 베트남인들이 경찰의 도박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10여m 높이의 모델(4층) 건물에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개요=23일 새벽 1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모델 4층 한 객실에서 베트남식 도박인 속칭

'속피야'를 하던 베트남인 L(34)·T(30)씨 등 2명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이 객실 외벽에 설치된 가로 50cm·세로 120cm의 철제 가림막에 몸을 숨겼으나 추락해 숨졌다.

B(30)씨도 L씨 등과 함께 몸을 숨겼으나 추락해 중상을 입고 광주 H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철제 가림막에 올라섰으나 철제 가림막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부러지면서 번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15명은 이날 자정 도박판이 벌어진 모델에 도착했다. 경찰 등은 모델 주변 경계탑과 객실 투입탑으로 나눠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개요=23일 새벽 1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모델 4층 한 객실에서 베트남식 도박인 속칭

단속대상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이날 사상자 3명을 포함한 베트남인 27명(남자 20명·여자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468만원·포커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사고 순간=경찰관 등이 들어다치자 건물 내·외에서 망을 도던 한 일행이 이런 정황을 알렸다. 도박을 하던 베트남인들은 각각 흩어져 도주했다. 갑작스런 소란에 한창 게임에 열중하던 L·T씨 등 3명은 건물 외벽 철제 가림막에 몸을 숨겼다.

이를 본 또 다른 베트남인 D(30)씨도 T씨의 뒤를 따라 황급히 몸을 숨겼으나, 하중을 이기지 못한 철제 가림막은 10m 바닥으로 떨어졌다. D씨는 가까스로 창문 틀을 잡은 뒤 버텼고 경찰관에게 의해 목숨을 건졌다.

◇왜 달아났나? =이전에 검거된 베트남인 27명 중 16명(남자 15명·여자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이날 사망한 T씨 등 2명과 부상을 입은 B씨 등 3명 모두 불법체류자들이다.

강제출국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도주한 것이다. 이들은 광주 하남공단 내 모 중소기업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다.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강제출국시킨 뒤 1~5년간 재입국을 불허하고 자발적 귀국자는 6개월 뒤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단속 강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중 도박 사범이 가장 많아 5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은 지난 12일 영암에서 불법 도박을 한 베트남인 19명을 검거하는 등 점조직처럼 이뤄지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5명 이상 불법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고 올레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의 불법 도박 단속을 피하려다 베트남인 2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델, 사고 현장인 4층 객실 건물 외벽에는 가로 50cm·세로 120cm의 철제 가림막이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철제가림막이 떨어진 객실 외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원침 (8422) 김종두



5·18유공자 숨진 채 발견 생활고 시달려... 자살 추정

생활고에 시달리던 5·18 민중항쟁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5·18 구속부상자회 조동기(51) 대 회합력살상이 지난 22일 밤 8시3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서는 불에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서부경찰은 조 실장이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 실장은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5·18 진상 규명과 확산자 처벌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다 안면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생활해 왔으며, 보상금과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왜 내편 안들어 줘" 출동 경찰에 행패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 성이 경찰서행.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0)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A아파트 앞길에서 북부경찰 일곡지구대 소속 서모(50) 경위의 목살을 잡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서 경위에게 행패를 부렸는데, 경찰에서 "서 경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났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파트 현장 시커먼 연기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아직까지 쌓여온 건축 자재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다. 건축 자재가 불에 타면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회사 점퍼 입고 직원 행세한 사기범

취업 미끼 역대 뜯은 50대 거커

30~40대 가장들에게 대기업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역대 금액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에 사는 한모(56)씨는 지난 7월 초 광주에 사는 A(43)씨에게 모 대기업 직원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대기업 취업과 지적 장애아 자녀의 협력사 병원 입원을 약속해 5800만원을 뜯어냈다.

한씨는 이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회사 점퍼를 입고 다니며 피해자들에게 몰래 회사 견학을 시켜주는가 하면 사장 등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왔다.

한씨는 또 회사 사장, 본부장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00월 00일 00시까지 출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심을 피해왔다. 한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4월 사촌 조카 정모(39)씨를 같은 수법으로 속여 10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3월 동종전과로 출소한 한씨는 2007년 8월부터 2년간 이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3일 한모(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깨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매수 신고자에

포상금 역대 최고 1억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위법행위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녹음물을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입수 경위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지법 남원지원 영장전달

이런 관사는 지난 20일 상대 예비후보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순창군수 후보이홍기씨와 금품 등을 요구한 조동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조씨는 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씨가 여러 제의를 하면서 문서공증까지 요구했으나 일단 나중에 확답하기로 하고 해어졌다. 이후 조 씨들이 불법이어서 전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연합뉴스

안갯속 화물차·버스 충돌

영암 신북서 ... 25명 사상

23일 새벽 5시58분께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에서 4.5t 화물차와 25인승 버스가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5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짙은 안개로 운전자들이 상대의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ish@

영유아 'RS바이러스' 주의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에게 RS바이러스(호흡기 세포융합) 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감기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 가운데 5세 이하 영유아나 천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게서 RS바이러스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 가을철 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21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자료 분석결과 올해 40번째 주부터 42번째 주(9월25일~10월15일)에 RS바이러스 검출

률이 각각 8.7%, 12.7%, 15.4%를 기록해 RS바이러스 가을철 유행이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3주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RS바이러스는 대표적인 겨울철 유행 바이러스의 하나로 주로 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하는데, 영유아 중증 호흡기질환의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졌다.

/채희정기자 chae@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인 인기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향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재질(PP,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변색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설치장소

광주지역 : 한빛고시학원, 갤러리존, 대림물류센터, 청연한방병원, 텃밭, 양동시장 외 200여곳
 기타지역 : 송파도서관, 제주한화리조트, 인제대학교, 우체국, 오투기, 이마트성수점
 홈플러스 강서점, 700마켓, 롯데마트,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인천국제공항.

(주)우림네트웍스

062-251-9792

www.donbandi.com

형광등용

디오파이트용

삼파장용

애코반사캡

DIY세트